

# 豊山金氏마을 뜰집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 安東 五美마을과 奉化 梧麓마을의 族譜를 바탕으로 -

金 華 峰

(진주산업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주제어 : 변천, 형성, 발전, 변화, 족보

## 1. 序 論

### 1-1. 연구 목적

전통주거는 지역적, 계층적, 시대적으로 적지않은 유형이 있지만, 安東文化圈의 증상류층 주거를 대표하는 뜰집만큼 독특한 유형도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음자집 혹은 입口字집으로 불리어온 뜰집의 특성은 선행연구<sup>1)</sup>를 통하여 지역적, 계층적 유형이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뜰집의 유형적 특성은 시대적 변천과정의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그 공간의 가치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건축의 현대적 의미는 그 시대정신을 함축한 역사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공통적 속성이 나타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통주거의 연구에 있어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매우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객관성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범위에서의 한정된 대상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뜰집은 근본적으로 지역적, 계층적 동질성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건축연대나 증개축의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범위를 氏族마을로 한정하면, 氏族의 역사적 변천에 근거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氏族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적 사료인 族譜를 근거로 뜰집의 變遷過程을 분석할 수 있다. 氏族의 分派활동이 건축의 變遷過程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박명덕의 연구<sup>2)</sup>에서 잘 명확히 밝혀졌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분파개념에 집중하여 지역단위와 종가 위주의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족보가 가지는 계통학적 자료를 거시적 안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씨족의 변천과정의 사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위마을 내에서의 주거 변천의 단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뜰집의 變遷過程을 族譜에서 파악된 系譜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떤 分派에서 적극적 혹은 소극적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氏族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차별성을 형성하면서 변천해 왔는지를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氏族의 分派구조를 바탕으로 安東文化圈 氏族마을 내에서 증상류 주거를 대표하던 뜰집에 대한 건축활동을 대상으로 형성, 발전 및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본 연구는 2003년도 진주산업대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張聖浚(「安東 土溪洞의 住宅類型에 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2권81호, 1978), 金泰鉉(「朝鮮後期 口字型 住宅의 構造와 部材比例에 關한 研究」, 홍익대 碩論, 1984), 金華峰(「조선시대 安東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博論, 1999)

2) 朴明德, 「嶺南地方 同族마을의 分派形態와 建築特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世
金文迪-永玄-有連-鍊成- 盒-允德														
卜允寶														
卜允堅-安鼎-子良(兵曹參判, 양자의 난에 禍)														
卜子純-從水														
(五美入郷,1398경)卜從石-微孫-楊震-義貞- 農 -大賢-奉祖(鶴湖) 오미 (3호)														
(虛白堂)(幽敬)(1553-1602)卜榮祖(忘高) 오록 (4호)														
卜昌祖(藏庵) 오록 (2호)														
卜慶祖(深谷) 오미 (4호)														
卜延祖(廣麓) 예천														
卜應祖(鶴沙) 오록 (2호)														
卜念祖(鶴陰) 파주														
卜崇祖(雪松) 오미 (3호)														

표 1. 豊山金氏 上代 世系表(괄호의 호수는 딸집의 수)

하여 유형적 동질성과 차별성이 시대성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한 마을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전체의 주거를 모두 분석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씨족마을에서의 딸집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중상류주거인 딸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딸집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은 마을에서의 딸집의 形成過程를 고찰하고, 씨족의 분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딸집의 건축행위를 통한 發展過程를 파악한 이후, 각 시대별 건축행위에 따른 세부적인 유형의 變化過程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의 변화는 채와 간의 구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면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공간유형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도록 한다.

연구대상은 安東文化圈에서 조사된 씨족마을 중에서 다수의 딸집을 보유하고 있는 門中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동문화권의 이러한 門中<sup>3)</sup> 중에서 지역적, 시대적 범위가 포괄적인 문중으로 豊山金氏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11호)와 봉화군 물야면 오록1리(9호)로서, 안동문화권에서 딸집을 바탕으로 번성한 씨족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豊山金氏마을은 이 두 곳뿐이다.

현장조사는 연구자의 선행연구<sup>4)</sup>에서 이루어진 평면도를 바탕으로 배치도 작성을 위한 조사가 2003년 7월~8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이에 5회, 15일의 기간과 연 20인의 조사원이 참여했다. 마을의 배치도는 국립지리원의 1/5000m 수치지도와 1/1200m 지적도를 바탕으로 실측 조사한 것을 결합하여 작도하였다. 또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마을 원로<sup>5)</sup>들과의 족보<sup>6)</sup>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世系表를 작성하였다.

2. 豊山金氏마을의 由來

豊山金氏의 시조는 대개 신라 敬順왕의 넷째아들 銀說의 후예로도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 高麗 23代 高宗때 佐理功臣 豊山伯에 봉해진 文迪을 시조로 하며, 그의 증손 4世 鍊成이 忠烈王때 文科에 올라 贊成事를 지내고 안동 풍산 石陵村에 이주해 오면서 五陵洞에 別墅를 두었다. 고려조에는 벼슬 따라 송도(개성)로 이주하여 대대로 살았다. 조선 초에 松都 士族을 漢陽에 이주하게 함에 따라 8世 子純이 한성 壯義洞(서울 청운동)에 이주하여 살다가, 병조판서를 지낸 그의

3) 비교대상 씨족은 안동권씨, 의성김씨, 진성이씨, 재령이씨, 풍산김씨 등으로 이들의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동문화권의 전체적인 딸집의 건축활동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4)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딸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5) 오미마을은 김직현(작고), 김재진(부)로부터, 오록마을은 김병운(작고), 김성재(부)로부터 주된 자료를 채록하였다.

6) 풍산김씨의 족보는 壬寅譜(1782년 발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豊山金氏中央宗親會, 「豊山金氏世譜」,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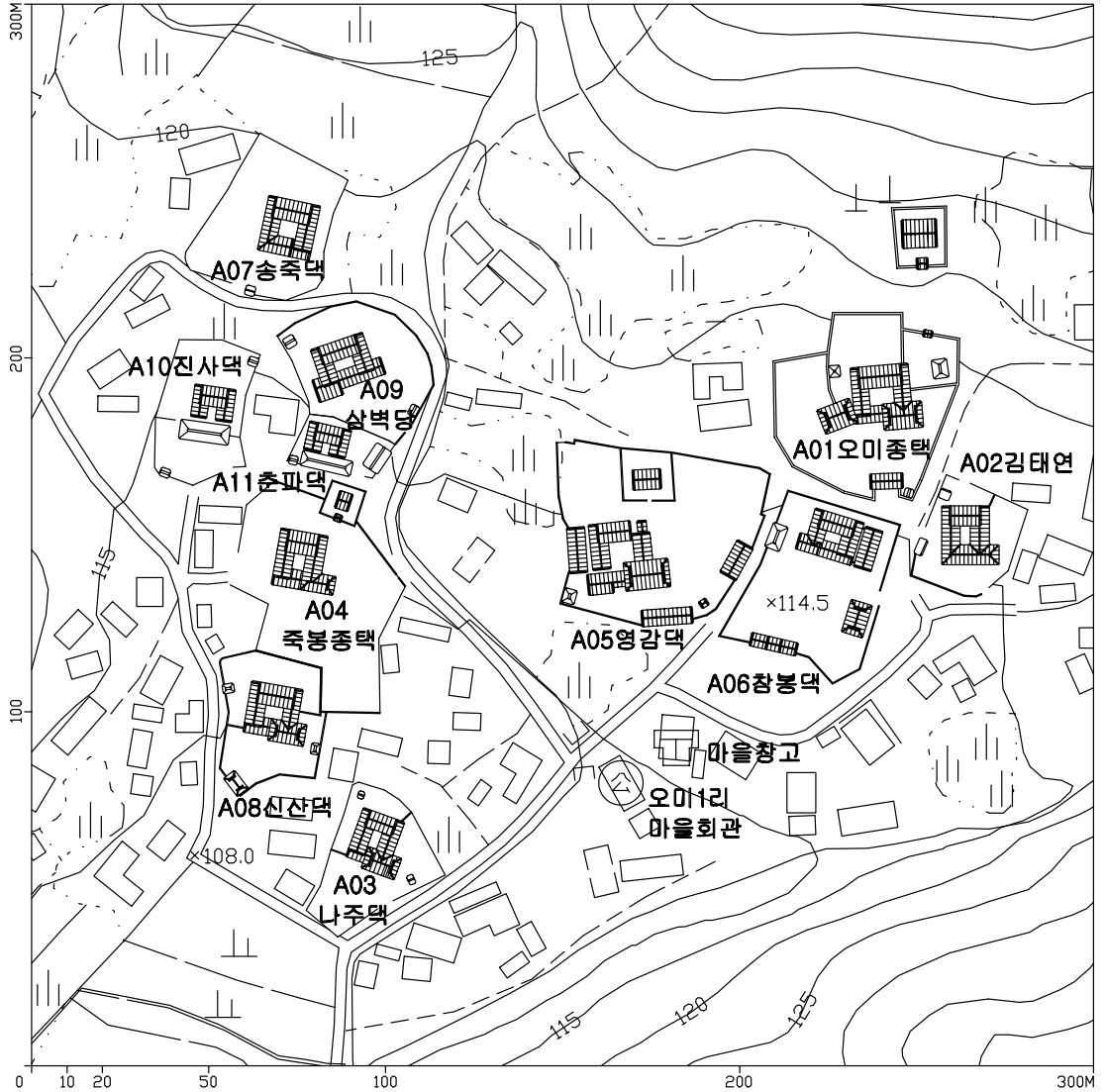


그림 1. 안동 오미마을 배치도

형 子良이 왕자의 난(1398)에 연류되어 해를 당함에 따라, 子純이 화를 피하여 모친을 모시고 선조가 살던 안동의 오릉동으로 낙향하였다.<sup>7)</sup>

### 2-1. 安東 五美마을의 由來

이렇게 오랜 과정을 통하여 오미마을에 입항한 이후, 한양에 남은 친족들이 자주 오릉동에 내왕하였다. 工曹參判을 지낸 11世 楊震(虛白堂, 1467~1535)이 마을 뒷산에 竹岩亭을 지어 후진을 양

성하였고, 12世 義貞(文靖公)이 흥문관의 벼슬에 올랐다. 14世 大賢(1553-1602)이 8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進士에 오르고, 5형제는 文科에 급제하였으므로, 仁祖께서 八蓮五桂라 하고 마을이름을 五美洞이라 賜名하고, 경삼감사를 시켜 마을 어귀에 鳳凰閣라는 문을 세우게 하였다.<sup>8)</sup>

이후로 안동의 대표적 씨족마을로 번창하였다. 현재 오미마을에는 풍산김씨 15세의 8형제 중 첫째 鶴湖派, 넷째 深谷派, 여덟째 雪松派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세거하고 있다. 이 마을에 있는 뜰집

7) 宋志香 편저, 『安東鄉土誌』 下, 대성문화사, 1983, p.355

8) 大枝齋所, 『豊山金氏 虛白堂世蹟』, 1999, pp.62~72



그림 2. 봉화 오록마을 배치도

중에는 풍산김씨종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8호), 오미동 참봉택(중요민속자료 제179호), 영감택(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9호), 삼벽당(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73호) 등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11호의 뜰집이 있다.<sup>9)</sup>

### 2-2. 奉化 梧麓마을의 由來

9) 현재 오미리는 1리와 2리에 전체 194호가 있으며, 그 중 오미리(동촌)를 중심으로 56호의 풍산김씨가 있으며, 타성은 10~20호 정도의 성씨(고령박25, 경주최20, 김해김19, 예천임19, 안동권9, 안동김9)와 38호의 기타 성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회의, 『慶北 마을誌(下)』, 1992, p.244)

오미마을의 후손 중 15世 鶴沙派의 증손인 18世 倣(蘆峰, 1670- 1737)은 풍수에 밝아, 길이 세거할 吉地를 찾던 중 봉화의 오록마을을 낙점하고 입향했다.(1696년). 원래 타성들(안동권씨, 의령여씨)이 살고 있었으나, 점차 풍산김씨의 씨족마을로 되었다고 한다.<sup>10)</sup>

이 때 안동 오미마을 15世 8형제의 후손 중 蘆峰과 같은 항열(1번)의 8중반이 이 마을에 입주하여, 둘째 忘窩派, 셋째 藏巖派, 여섯째 鶴沙派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번창하였다.<sup>11)</sup> 이를 반증해주

10) 大枝齋所, 전계서, 1999, pp.75~77

는 전설<sup>12)</sup>도 있는데, 대략 이러한 부를 누렸던 마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렇게 풍산김씨의 두 마을은 조선 初期와 中期라는 약 300여년의 시간적 차이(풍산김씨 8世와 18世)를 두고 형성된 마을이다. 입향동기 또한 다르다. 오미마을은 원래 별장을 두었던 한적한 곳이었던 연유도 있지만, 결국은 피난처로 찾아온 隱遁型의 마을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오록마을은 풍수적 시각으로 최적의 환경을 찾아 들어온 吉地型으로, 문중의 여러 형제들이 대대적으로 이주해온 계획적 특성이 강하다. 정착과정에서부터 매우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르지만, 모두 입지에 애착을 가지고 마을을 발전시켜온 것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 3. 豊山金氏마을 뜰집의 形成過程

#### 3-1. 安東 五美마을의 外部環境

오미마을은 풍산현에서 북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행정구역이 예천군 명호면과 낮은 산으로 경계하고 있다. 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四山은 태백산으로부터 내려온 학가산을 祖山으로 죽자봉(적석산, 248m)을 현무로 하며, 청룡으로 아미산, 백호로는 도인산, 주작으로 검무산(331m)이다.<sup>14)</sup> 오미마을의 지형은 다섯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어 원래 五陵洞이라 불리었

표 2. 안동 오미마을의 연구 대상가옥 목록

기호	가옥주	번지	택 호	건축 연대
A01	金恪鉉	233	幽敬堂	1600/1731/1812
A02	金台淵	233		1910경
A03	金在煥	286	羅州宅	1930경
A04	金甫鉉	273	慕竹軒	1666/1729/1990
A05	金淵壽	242	守監宅	1759안채/1814사랑채
A06	金潤	248	參奉宅	1820경
A07	金在銑	286	松竹宅	1820경
A08	金在燦	275	신산택	19C후반
A09	金承鉉	283	三碧堂	1760경
A10	金在衡	280	進士宅	1830경안채/ 1920경사랑채
A11	金在根	282	춘파택	1860경안채/ 1900초사랑채

듯이, 낮은 구릉지형에 속하는 곳이지만, 주변에 있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은둔적 특성이 강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오미들과 넓은 풍산평야가 가까운 곳에 있어 농업경영에도 유리한 최적의 주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하회(풍산류씨), 가곡(안동권씨) 및 소산(안동김씨)에서 오미로 이어지는 안동 서쪽지역의 풍산평야를 중심으로 한 저명 씨족들이 마을을 이루는 일련의 환상구조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다.

마을의 주 진입로는 남측에서 마을 내의 소하천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며, 이를 따라 마을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다시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동쪽영역의 제일 안쪽에 종가가 있다. 동쪽영역에 오미종택을 중심으로 4호, 서쪽영역에 죽봉종택을 중심으로 7호의 뜰집이 분포되어 있다.(그림1 배치도 참조)

#### 3-2. 安東 五美마을 뜰집의 形成過程

오미마을의 뜰집의 건축은 입향시기(1398경)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언제부터 형성된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선 종택의 건축을 살펴보면, 선조9년(1576)에 14世 大賢(悠然堂)이 부친의 명을 받아 원래 영감택 터에 있던 종택을 풍수가의 권유에 따라 현 위치로 이건하였고, 이 건물이 임난에 불이나 1600년에 復建<sup>15)</sup>하였다고 한

11) 오록마을의 김성재씨 고증

12) 전설에 이 마을의 풍산김씨가 100間 집을 짓고 낙성석에 北壁을 초청하니 북벽은 소를 타고 와 대청으로 오르려고 하였는데 소가 오르려하지 않았다. 이에 북벽이 소도 안올라가는 마루에 사람이 어찌 오르느냐 하면서 이 집을 곧 헐고 터는 옛 모습대로 하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주인은 할 수 없이 그리 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 소문을 들은 호화주택 단속반인 御命差使가 당도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경상북도·경북항도사연구협의회, 상계서, p.831  
마을에서 이를 확인해보면 학사사당 앞의 빈터인 B09김제윤가옥이 그 곳이라 하나, 간의 규모가 삼십여 間인 것으로 보이며,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뜰집이 1930년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오록마을 김성재씨 고증

13) 현재 오록리는 물야면의 면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1~4리로 나뉘어져 있고, 창촌, 판교동 6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지역이다. 그 중 창촌에는 풍산김씨가 39호, 타성이 33호(1992년 기준) 거주하고 있는 풍산김씨의 씨족마을이며, 현재는 40세대 112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뜰집은 8호가 있다. 『慶北 마을誌(下)』, 1992, p.831

14) 大枝齋所, 전제서, 1999, p.66

표 3. 안동 오미마을의 뜰집 건축을 중심으로 한 世系表(글상자 안의 인물이 건축함)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大賢	奉祖	時宗-礪臣-健	瑞麟-聖源-相夏-宗一-復亨-魯欽	洛中-秉鈺-昌燮	元在	恪鉉	유경당										A01
	(鶴湖,1572-1630, 1600개축)				亭在	景鉉	泰淵										A02
					洛龍	泰秀	(1932경)										
						恒秀											
						冕秀	暎燮	在煥	나주댁								A03
						(1854-1930,羅州郡守,건축)											
	榮祖(忘窩) 봉화 오륙																
	昌祖(藏庵) 봉화 오륙																
	慶祖-時高	世臣															
	(深谷)	弼臣	侃	瑞雲-有源	相宅-宗五-重鼎-明欽-洛驪-秉烈-廷燮-在或	甫鉉	모죽헌										A04
	(竹峰,1653-1735)		相穆	宗錫-重佑-斗欽-洛周-秉璜-鼎燮-憲在-直鉉	淵壽	영감댁											A05
					(1759,안채)	(1826,사랑채 건축)											
						重休	宅欽-洛標-秉直-文燮-在鳳-鍊	潤	참봉댁								A06
						相德	(鶴巖,1797-1863,齋陵參奉,분가시건축)										
						相辰-宗信-重協	命欽										
							正欽	洛銓-秉燠-昱燮	在燦	(매입←27世燮)							
							(1808-1868)	在銑	(매입←27世完燮)	송죽댁							A07
						相烈-宗鉉-海教	永欽	洛璣-秉喆-禹燮	在燦	(매도→28世)	신산댁						A08
							(1825-1883)										
	愷祖																
	應祖(鶴沙) 봉화 오륙																
	念祖																
	崇祖-時獻-弘啓	俠															
	(雪松)	僖															
			僕	瑞圖-薄源	相龍-宗訥-重德	若欽											
							允欽										
							汝欽										
							友欽-洛龜-秉度-完燮	(매도→28世)	在銑								
							相奎	(1875-1947,24세正欽의 집 매입)									
							相龜	宗漢-重一-喆欽-洛斗-秉澤-允燮-在完	承鉉	삼벽당							A09
							(1746-1814,三碧堂)	洛書									
							분가시건축)	洛奎									
								洛泳									
								洛範									
								洛獻-秉澈-庸燮	在衡	진사댁							A10
								重三	(매입, 1830경안채,1920경사랑채)								
								重五									
								重七	翼欽								
								煜欽	煜欽-洛謨-秉準-時燮	在根	춘과댁						A11
								(1844~1895,안채-분가시건축)									
								性欽									

다.16) 이로써 1576년에 이 마을에 뜰집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

에 뜰집의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고, 하회마을의 양진당과 비슷한 시기에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며 상당히 앞선 뜰집의 건축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731

15) 화제를 당한 후 원래의 초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건축했다고 한다. 김각현 고증.  
16) 大枝齋所, 전계서, 1999, p.626.

년과 1812년에 중수한 것임이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15세의 8형제가 번창하여 그 중 세 파(첫째인 奉祖(鶴湖), 넷째인 慶祖(深谷), 그리고 여덟째인 崇祖(雪松))가 정착하게 되나, 초기에 뜰집의 건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8세 때인 18C 전반에 1호가, 21세 때인 18C 후반에 2호가 건축되었고, 23, 24세 대인 19C에 4호가 건축되어 전성기를 이루다가 20C초반에 들어 2호가 건축되면서 더 이상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2, 3 참조)

### 3-3. 奉化 梧麓마을의 外部環境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록1리 창마로 불리는 이 마을은 봉화읍에서 정북방향으로 12.7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봉화에서는 가장 북쪽에 속하며,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의 앞자락에 위치하여 경북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인접한 경계로는 동으로 춘양목의 주산지로 유명한 봉화군 춘양면을 경계로 하며, 서로는 영주의 부석면을, 북으로는 강원도의 영월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 마을은 太白山(1560m)을 祖山, 옥봉산[蘆峰山, 1242m]을 主山으로 하고 있으며, 문주산(1205m)에서 내려온 千石山을 靑龍으로, 서쪽은 선달산(1236m)에서 내려온 산을 白虎로 하고 있다. 남으로는 부석사의 뒷산인 鳳凰山(818m)에서 동으로 가지를 뺀 萬石山(492m)을 주작으로 하고 있다.<sup>17)</sup>

원래 梧麓이라 하여 오동나무숲이 깊었던 곳이며, 숙종26년(1700)에 마을 앞에 구휼미를 저장하는 큰 창고가 생겨 창마[倉村]라 불리고 있다. 주변이 높은 산으로 둘러 쌓이고 앞이 넓은 명당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길지를 찾아 蘆峰 李儼(1670-1737)은 먼저 마을에서 3리쯤 떨어진 곳에서 움집을 짓고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1696년) 마을 중간을 흐르던 물길을 서편으로 돌렸고, 그 내청룡의 빈 곳 어귀에 터를 닦고 남은 돌로 석축을 쌓아 그 앞에 성황당을 짓고 그 서편에는 짐대를 세웠다고 한다.<sup>18)</sup> 이후 蘆峰이 제주목사를 지내고 돌아올 때(1736년) 제주 술씨를 가져와 심어, 마을

표 4. 봉화 오록마을의 연구 대상가옥 목록

기호	가옥주	번지	택 호	건축연대
B01	金起弘	664	忘窩舊宅	1850경
B02	金聲在	670	海村宅	1793
B03	金秉潤	669	石陰齋	1890
B04	金익수	668	仁村宅	1863
B05	金明燮	683	茁浦宅	1890경
B06	金竣鉉	663	鶴沙舊宅	1890경
B07	金在河	666		1785/1997철거
B08	金在憲	667	蘆峰舊宅	1740경
B09	金在潤	658		1870경/1933경철거

의 좌청룡 꼬리가 짧은 것을 보충한 마을 입구의 숲술이 현재도 120m가량 남아있다.<sup>19)</sup>

술술을 돌아 마을의 입구로 들어서면 정자들이 먼저 나타난다. 문중에서 교육 및 행사용으로 건립한 花樹精舍(1723경 건축), 藏巖亭(경북문화재자료 제150호, 1724건축), 입향조를 위한 蘆峰精舍(1731경 건축)등이다. 가운데 도로의 양편으로 4호씩의 뜰집이 분포하며, 마을의 후면에는 鶴沙사당과 忘窩사당이 있어 10여 채의 와가가 즐비하게 늘어선 대규모의 마을 구성을 보여준다. 현재 ‘전통문화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3-4. 奉化 梧麓마을 뜰집의 形成過程

오록마을의 입향시기는 17C말이며,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건축연대가 18C초(花樹精舍, 1723경)이므로, 뜰집의 건축연대도 이를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입향조 살림채는 그의 손자(20世)대인 18C 중반에 건축한 것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뜰집으로 파악되었다. 뒤이어 18C 후반에 2호의 뜰집이 건축되었고, 19C 중반에서 후반까지 6호가 건축되어 뜰집의 건축이 가장 융성하였던 시기인 것으로 파악된다.(표4, 5 참조)

따라서 오미마을과 오록마을의 뜰집의 형성과정 또한 입향과정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차이를 가지

17) 大枝齋所, 전계서, 1999, p74

18) 大枝齋所, 전계서, 1999, p76

19) 「전통문화체험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 봉화군, 2001, p.36

표 5. 봉화 오록마을의 뜰집 건축을 중심으로 한 世系表(글상자 안의 인물이 건축함)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大賢 <sub>T</sub> 奉祖(鶴湖) 안동 오미																
榮祖 <sub>T</sub> 時翼-甲壽 <sub>T</sub> (侄-瑞輯-宅源 <sub>T</sub> 相鎬-宗鳳-重夏-奎運 <sub>T</sub> 震洛-秉吉-台燮(賣渡→26世 櫛<起弘>)망와구택																B01
(忘窩)																
(1850경 건축)																
相碩-宗哲-重泰 <sub>T</sub> 奎昌-應洛-秉燦-萬燮<聲在>혜촌택																B02
(海村,1793건축)奎穆 <sub>T</sub> 洛蓮<秉潤>석음재																B03
(1890경 건축)																
儋 <sub>T</sub> 儼-瑞昱-道源-相舜-宗運-重王九-奎東 <sub>T</sub> 禹洛(賣渡→<익수>)인촌택																B04
(1863건축)																
時敏																
時忱																
時梯-泰壽-促-叙天-左源-相綸-宗萬-重觀-仁欽-洛範-櫛-興燮-在竣<起弘>(26世買入←27世台燮)																
昌祖 <sub>T</sub> 時準-翼壽-儋-瑞斗-德源-相運-宗學-重璿-奎建-徐洛-秉世-理燮-在原<峻弘>																
(藏庵)                                 弘洛 <sub>T</sub> 秉奎 (학사종택매입)																
秉植-璋燮 <sub>T</sub> 在浩(26世買入←24世濟欽)																
時獻																
時衡																
在河																
時聖-台壽 <sub>T</sub> 儼																
仙-瑞鵬 <sub>T</sub> 浚源																
行源																
益源-相駟-宗晦-重威 <sub>T</sub> 奎赫																
奎炯 <sub>T</sub> 九洛																
慶祖 안동 오미																
愜祖																
應祖-時行 <sub>T</sub> 輝道-俱 <sub>T</sub> 瑞趾-長源-相溫-宗然-重厚-紹欽 <sub>T</sub> 世洛-秉準(매도→27世理燮--<峻鉉>)학사구택																B05
(鶴沙)                                 敬洛																
仁洛-秉河-股燮<在憲>(25世買入←27世陽燮)																
瑞朝																
瑞白																
瑞大 <sub>T</sub> 海源																
淵源-相岳 <sub>T</sub> 宗煥(無後,弟宗薰入住↓)																B07
悞源 (1785건축)																
鐸源-相玉施-宗薰-重薄-濟欽(賣渡→26秉植-在河)(1997년 철거)																
輝鳳 <sub>T</sub> 信																
价																
政 <sub>T</sub> 瑞節-穆源 <sub>T</sub> 相敏-宗華-重器-泰璜-成洛-秉直-陽燮(賣渡→25世仁洛--<在憲>)노봉구택																B08
(蘆峰,1670-1737,  (1713-1758,건축)																
1696年梧鹿入郷)  瑞必-之源-相定 <sub>T</sub> 宗燦																
宗煜																
宗榮																
宗泰 <sub>T</sub> 重淵-奎一-厚洛-秉元-允燮<在潤>																B09
瑞吉 (1800-1883,병조참판) (1933년경 철거)																
念祖																
崇祖 안동 오미																

고 있다. 오미마을에서의 뜰집의 건축과정은 초기 소 시작되어 19C 전반기에 잠시 주춤하다, 19C 후반에 급속한 증가의 경향을 보였지만, 20C 초에는 거의 신축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형성그래프로 비교해보면 <그림 3>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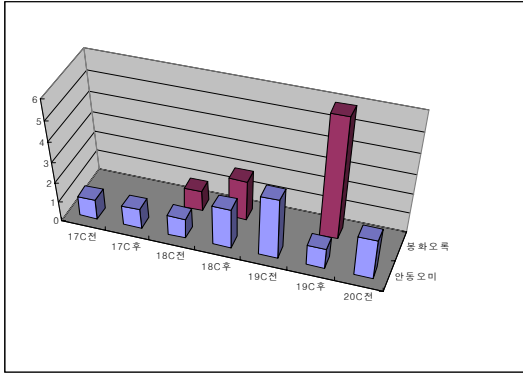


그림 3. 시대별 뜰집의 건축 戶數

나타나, 완전히 다른 형성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완만한 형성과 급진적 형성이다. 결과적으로 모두 10호 내외의 뜰집이 한 마을에 형성되면서 점진적인 형성과정을 거친 마을과 붐이 일어나듯이 짧은 기간동안에 융성한 마을로 대비되어진다.

#### 4. 豊山金氏마을 뜰집의 發展過程

##### 4-1. 安東 五美마을 뜰집의 發展過程

오미마을은 입향시기가 조선초기로서 마을의 형성과정으로는 안동지역의 씨족마을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마을이다.<sup>20)</sup> 입향동기는 은둔형으로 파악되며, 초기의 건축형식이나 주거의 유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정확한 형성과정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족보의 기록(표1 참조)을 통하여 초기의 직계위주의 단순한 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8세에 입향한 이후 13세까지는 건축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11세 楊震(虛白堂, 1467~1535, 工曹參判, 不遷之位)에 이르러 후손의 교육을 위한 정자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건축적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4세 大賢의 8형제들이 八蓮五桂의 칭송을 받음으로서 크게 융성하게된 것이 17C초반의 일이다. 이로써 17C 후반까지 4호의 뜰집이 건축되

어 지는데, 이 시기에 15세의 3계파(1鶴湖, 4深谷, 8雪松)가 오미마을에 정착하였다. 가장 먼저 오미종택인 'A01유경당'이 건축되었고, 17C 중반에 심곡파의 'A04죽봉종택'이 건축되었다. 18C 중반에 들어와 深谷派의 작은집인 'A05영감택'은 안채만 우선 지어지게 되고, 雪松派의 'A09삼벽당'이 건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선 中期의 間 구성의 특성<sup>21)</sup>을 가진 홑집 위주의 뜰집이 형성되었다. 또한 각 派祖의 家廟가 파종가에 건축되는 것도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각 파종가의 건축적 구성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C 중반에 들어 각 파에서 건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4호의 뜰집들이 형성되는데, A06참봉택, A07송죽택, A10진사택, A11춘파택 등이다. 이러한 집들은 間의 구성이 모두 뒷간으로 구성되어 조선 後期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20C에 들어와 鶴湖派에서 2호가 지어지는데, A02김태연과 A03나주택이다. 이들은 주거의 규모가 모두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규모뿐만 아니라 안채의 間 구성도 홑집으로 되어서 경제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분과과정의 구성과정을 18C 후반과 20C 초반의 상황으로 나누어 포도송이형<sup>22)</sup>의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4, 5>이다.<sup>23)</sup> 각 계파에서 형성되고 있는 뜰집의 계통이 명확히 드러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각 계파간의 고른 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미마을의 뜰집은 오랜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초

21) 일반적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間 구성이 홑집만으로 이루어진 유형을 조선 前期(15~임난이전)의 특성으로 보며, 後期(1800이후~일제강점기)의 특성은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이 뒷간 혹은 겹집으로 이루어진다. 中期(임난이후~1800경)는 그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崔 壹, 「朝鮮 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22) 일반적으로 樹狀型의 개념으로 표현하지만 보편적인 마을의 구성이 종가가 가장 깊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뒤집은 포도송이형(the type of bunch of grapes)으로 표현하면 종가의 위치가 가장 짧게 표현되며 上代에서 下代로 내려온 개념적 형상과 비슷한 도식으로 표현되므로 더 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23) 주거의 매매는 표에 표시하지 않았고, 최초 건축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0) 안동문화권의 씨족마을의 형성시기는 임난 직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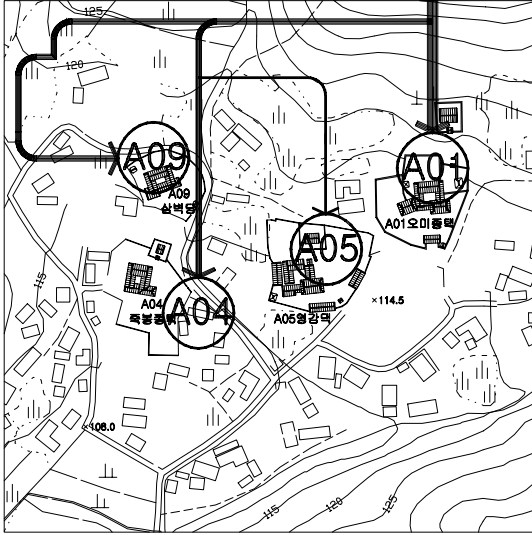


그림 4. 18C 후반의 오미마을 뜰집 형성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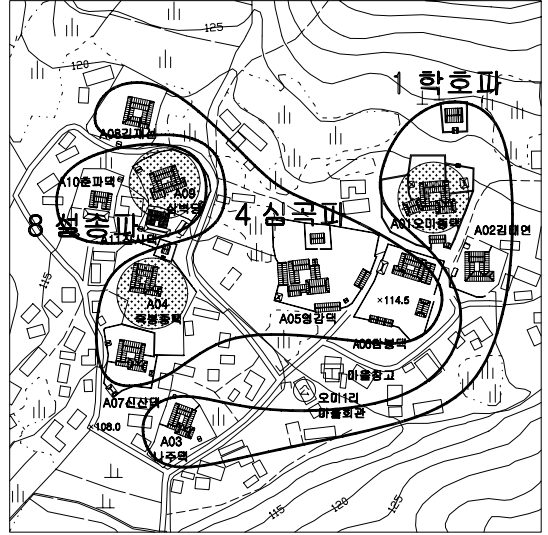


그림 6. 오미마을의 각系派별 공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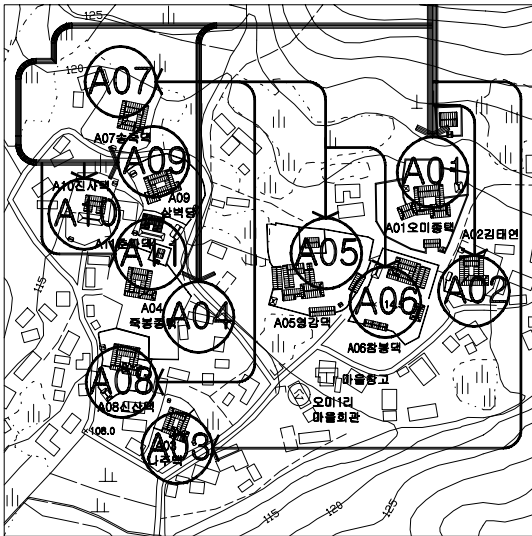


그림 5. 20C 초반의 오미마을 뜰집 형성 개념도

기의 파종가를 중심으로 주거가 분가되고 있으며, 후기에 갈수록 영역이 확장됨에 있어 영역적 범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파의 공간적 영역을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鶴湖派의 영역에는 무리가 있지만, 深谷派와 雪松派의 뜰집 분포는 뜰집의 증가에 따른 영역의 확장 정도가 잘 드러나며, 각 파의 공간적 점유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4-2. 奉化 梧麓마을 뜰집의 發展過程

오록마을은 조선 중기에 입향한 늦게 출발한 마을이다. 그 입향동기는 우리나라의 씨족마을 중 적지않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吉地型이다. 입향조인 18世 1政(蘆峰, 1670~1737, 濟州牧使)이 입향하면서 오미마을의 후손들이 같이 들어온 관계로 입향조의 향렬보다 先 향렬의 후손이 뒤늦게 마을에 들어온 특수한 사례의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초기의 건축활동으로는 오히려 뜰집보다는 정자(花樹精舍(1723경), 藏巖亭(1724), 蘆峰精舍(1731경))의 건축이 더 먼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 때 가장 먼저 건축된 뜰집이 입향조의 주택인 B08노봉종택으로서 노봉정사와 함께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18C 후반까지 건축된 뜰집은 B02혜촌택, B07김재하의 뜰집으로 향렬의 위계와 상관없이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7 참조) 그러나, 19C 중반을 거치면서 길지의 명성을 보여주듯 후에 진입한 先 향렬 분파의 뜰집이 대거 건축되었다. 이들의 間 구성은 거의 뒷집의 구성으로 조선 後期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즉, 오록마을의 뜰집은 모두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C에 들면서 더 이상 뜰집의 건축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뜰집이 철해(B07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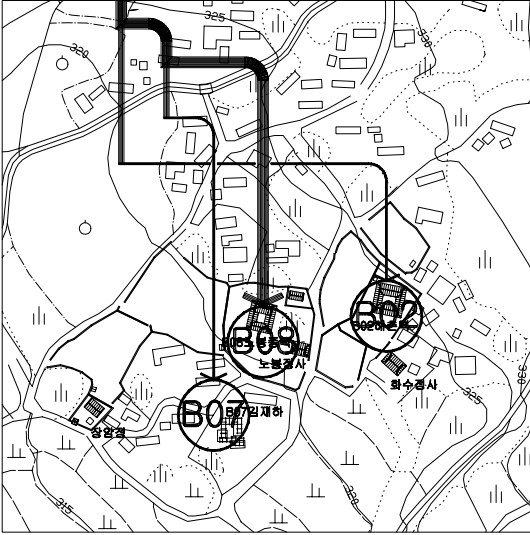


그림 7. 18C 후반의 오록마을 뜰집 형성 개념도



그림 9. 20C 초기 오록마을의 각 系派별 공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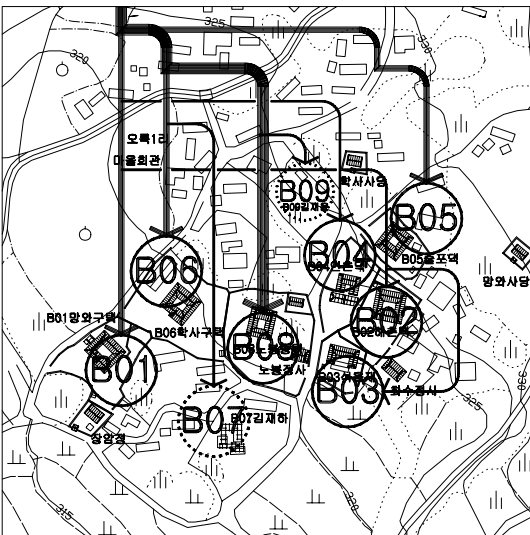


그림 8. 20C 초반의 오록마을 뜰집 형성 개념도

재하-1997경, B09김재운-1933경)되는 등 급격한 건축활동의 사양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다, 20C 중반에는 다시 先 향렬의 派祖를 위한 2채의 사당이 건축되면서, 마을의 전면에는 정자, 중앙에는 뜰집, 후면에는 사당이 자리하는 구성이 완성되었다. 이는 파종가의 주거영역내에 가묘를 건축할 영역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여 결국 밀집형으로 건축된 결과적으로 각 분파의 영역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그림9의 가는 선 영역), 마을의 공간 구성이 축적인 구성을 하며 결과적으로 전면에 정자영역, 중앙에 주거영역, 후면에 파조의 사당영역이 위치하는 전체적 구성의 체계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9 참조)

따라서 풍산김씨 씨족마을에서의 뜰집의 발전 과정 또한 명확히 대비되어진다. 점진적인 건축과정을 통하여 각 시대별 주거의 특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각 계파간의 영역성이 비교적 잘 확보되어 있는 오미마을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유사한 건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파간의 영역은 무시되고 전반적인 마을의 영역적 공간구성을 갖추어간 오록마을의 특성으로 대비되어진다.

5. 豊山金氏마을 뜰집의 變化過程

뜰집의 본체구성은 전체가 연결된 폐쇄적 구성을 취하는 완결형 뜰집<sup>24)</sup>이 일반적 유형<sup>25)</sup>인데,

24) 뜰집은 본체의 구성형식에 따라 完結型和 連結型(전체가 연결되었으나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형), 分離型(2 혹은 3채로 口字型을 취하는 유형)로 구분된다. 김화봉, 전계서, 1999, pp.63~70

25) 안동문화권의 뜰집의 본체 구성유형에 따른 비율은 완결형이 67%(220호), 연결형이 6%(21호), 분리형이 27%(87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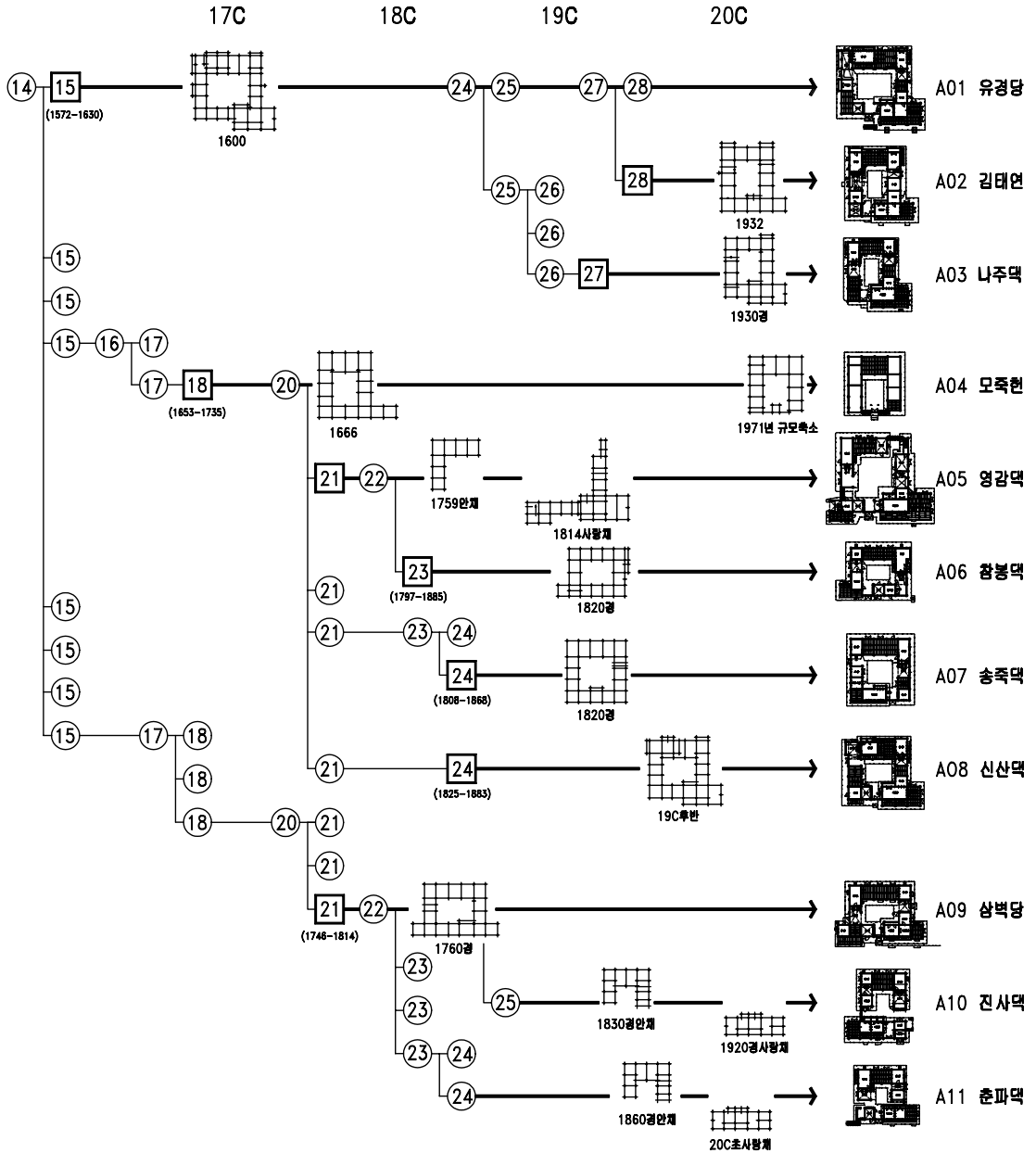


그림 10. 안동 오미마을 뜰집의 변화과정

그 구성이 매우 독특한 형상을 취하고 있으므로, 규모면에 있어 한번에 짓기 무척 어려우며, 시공 면에서는 한번에 짓지 않으면 또한 그 완성이 매우 어려운 집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뜰집을 지으려 해도, 경제적 여건이 쉬운 것이 아니므로, 오랜 기간동안의 건축과정을 거치게 된다.

5-1. 安東 五美마을 뜰집의 變化過程

오미마을에서도 많은 뜰집이 지어지면서 그러한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번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완결형 뜰집은 오미마을에 7호가 있으며, 분리형으로 건축된 것은 4호가 있고, 연결형은 없다.

18C까지의 주거를 살펴보면 뜰집의 형상을 이

루고 있었던 것은 A01유경당, A04모죽헌, A09삼벽당 3호이다. 오미종가인 유경당은 복건(1600) 이후에 두 번의 중건(1731, 1812)이 있었는데, 사랑채의 구성이 원래의 간 규모를 많이 벗어나는 형식인 것으로 보아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죽헌이 편행간형, 삼벽당이 양행간형<sup>26)</sup>으로 건축되자 종가가 보다 큰 규모의 사랑채로 개축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모죽헌과 삼벽당이 모두 텃간이 없으나, 유경당에서는 텃간을 도입한 것으로 보아 시대적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19C 전반에서 중반까지는 가장 적극적인 뜰집의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A05영감택의 사랑채 건축(1814)을 시작으로 1820경에 A06참봉택, A07김재선의 건축이 이루어졌고, A10진사택(1830대) 및 A11춘파택(1860경)의 안채가 건축되었다.

19C 후반에서 20C 초반에는 완성의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 A08신산택으로부터 A02김태연, A03나주택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비슷한 유형의 편행간 확장형의 건축이 이어졌다. 또한 19C 초반에 안채를 지었던 진사택 및 춘파택은 사랑채를 증축했다.(그림10 참조)

이 과정에서 두 집의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데, 심곡과의 24世正欽의 집(A07)을 설송과 26世에서 매입하였는데, 그 직계후손(28世在燦)은 다시 당내의 뜰집(A08)을 매입하였고, 원래의 집(A07)은 그 사촌(28世在鏞)이 심곡과로부터 다시 매입하였다. 원래의 집을 다시 찾으려는 애착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저명 씨족마을로서의 구성을 이룬 오미마을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유지가 쉽지 않았던 듯, 1970년대에 와서 A04죽모헌이 축소 개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2. 奉化 梧麓마을 뜰집의 變化過程

늦게 출발한 오록마을의 뜰집은 초기인 18C 전,

후반기의 여명기와 19C 초의 잠재기를 거쳐 19C 후반에 대대적인 붐이 일어났다.

18C의 뜰집의 형상은 完全方型(B02해촌택, B08노봉종택)을 모델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19C 중반 이후에 건축되어지는 뜰집은 모두 6호인데, 4호는 완결형이며, 2호는 분리형 뜰집이다. 완결형은 모두 방형이며, 모두 사랑채와 안채는 모두 퇴를 두로 있어 조선 후기의 근대적 평면유형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리형 뜰집은 모두 3호(B03석음채, B04인촌택, B07김재하)가 건축되었는데, 안채의 유형을 ㄷ자형으로 구축하고 뒤에 일자형의 사랑채를 폐쇄적으로 전면에 건축하였다. 그 건축 시기는 석음채의 경우는 동시에 지어졌으며, 나머지 집의 경우는 명확한 시기가 파악되지 않았다. 석음채는 사랑채가 추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조적 차이로 인한 분리로 볼 수 있으며, 인촌택도 몇번의 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시에 건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랑채의 간수가 안채보다 크든(B04, B07) 작든(B03) 상관없이, 분리된 안채 기둥의 軸과 무관하게 전체의 중심에 건축하여 좌우 대칭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채와 사랑채의 기둥 축은 완전히 어긋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랑채와 안채의 좌우의 폭이 일정한 구성을 취하는 특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형을 선호한 평면형식으로부터, 실용성과 의장성을 동시에 취한 구성으로 보여진다.

특이한 것은 19C 말과 20C 초반에 들어 많은 뜰집들(B01, B04, B06, B07, B08)이 매매의 대상이 되어 많은 주인이 자리이동을 하였다. 망와종택의 경우는 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학사종택을 장암종손이 구입하여 파종가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생긴 것이다. 더구나, 입향조의 증가도 주인이 바뀌는 등 주거의 소유관계의 변화가 매우 빈번히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문중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적 구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표5 참조)

20C초에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뜰집이었다는 B09김재윤 가옥과, 근년의 B07김재하가옥의

26) 완결형 뜰집의 형식은 기본적인 方形을 바탕으로 간의 행렬방향의 확장형식에 따라, 行間擴張型(편행간형, 兩행간형), 列間擴張型, 行列擴張型으로 구분되어진다. 김화봉, 전게서, 1999, pp.162~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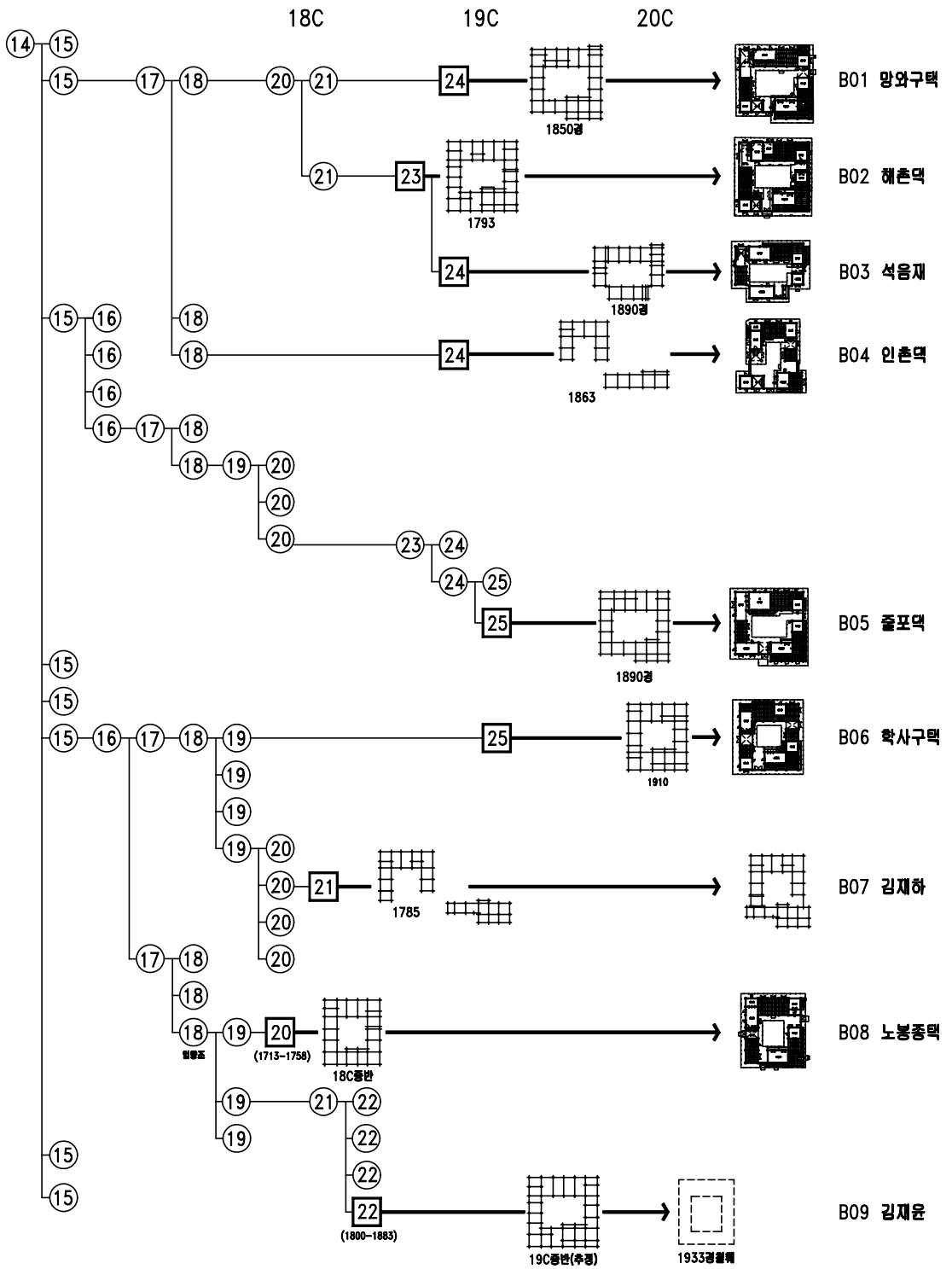


그림 11. 봉화 오록마을 뜰집의 변화과정

훼손을 제외하면 원래의 건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풍산김씨마을의 뜰집의 변화과정은 모두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오미마을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건축되면서, 공간의 많은 변화를 내포하게 되며, 가계의 규모에 따라 증축과 개축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적은 예이지만 주거의 門中 內 매매도 이루어졌다. 오록마을의 발전과정은 어떤 유행처럼 일어나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어지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 많은 뜰집의 주인이 바뀌었으며, 두 채의 주거가 훼손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門中 內에서 대부분 수용하여 주거의 주인이 他 門中으로 바뀌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노력이 엿보임을 간파할 수 있다.

## 6. 結論

본 연구는 安東文化圈에 있는 豊山金氏의 두 氏族마을에서 뜰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時代性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다. 시대적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族譜를 바탕으로 작성된 世系表를 근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뜰집을 중상류 주거의 주된 주거유형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마을에서 뜰집이 어떻게 형성, 발전,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풍산김씨 문중은 안동문화권에 정착하여 同村, 遠村 分派하면서, 상이한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주거문화의 속성을 충실히 지속해왔다.

2. 마을의 입향동기는 隱居型和 吉地型으로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씨족의 발전이 왕성해 지고 나서는 뜰집을 반가의 주거형식으로 받아들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온 오미마을의 뜰집은 分派간의 영역성이 강한 內的 秩序를 유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발전된 오록마을의 경우는 分派간의 영역성은 거의 무시되었지만, 마을 전체의 영역성이 더욱 강조되는 外的 秩序가 갖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 뜰집 본체의 間 구성에 있어, 오랜 동안 변천해 온 오미마을에서는 조선 中期와 後期の 유형이 모두 잘 나타나 있어, 홑집형에서 ㅈ집형으로 변천해 가는 일반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오록마을에서는 後期の ㅈ집유형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본체의 배치 구성은, 오미마을에는 行間擴張型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오록마을은 方型을 선호하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

5. 뜰집의 건축은 두 마을 모두 19C를 정점으로 가장 많은 건축이 일어나며, 오미마을에서는 파종가의 건축을 중심으로 가묘를 구성하고, 파종가의 건축규모를 넘지 않는 위계성을 볼 수 있고, 오록마을에서는 다양한 계파가 혼재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계파내의 위계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마을 전체의 영역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외형적 위계를 갖춘 마을의 공간구성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世系表에 근거하여 한 씨족마을의 세력형성에 주요한 수단이 되었던 뜰집이 조선 중기와 후기를 통하여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안동문화권의 많은 씨족 중 한 문중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반적 건축활동의 과정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문중의 건축활동의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주거문화의 맥락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張聖浚, 「安東 土溪洞의 住宅類型에 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2권81호, 1978.4, pp.3~10
2. 宋志香 편저, 「安東郷土誌」, 대성문화사, 1983
3. 金泰鉉, 「朝鮮後期 口字型 住宅의 構造와 部材 比例에 關한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4
4. 崔 壹, 「朝鮮 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關한 研究 -階層性과 地域性의 觀點에서 본 配置와 平面構成을 中心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5. 豊山金氏中央宗親會, 「豊山金氏世譜」, 1990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7.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慶北 마을誌(下)』, 1992
8. 朴明德, 「嶺南地方 同族마을의 分派形態와 建築特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2
9. 大枝齋所, 『豊山金氏 虛白堂世蹟』, 1999
10. 金華峰,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
11. 봉화군,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기본계획」, 2001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Ddeulzip on Omi Village in Andong and Orock Village in Bonghwa

Kim, Hwa-Bong

(Assistant Professor, Jin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in the Ddeulzip.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lan village of Pungsan Kim's family in Andong Cultural Area. Architectural transition of Ddeulzip is analyzed into three part. The first part is settlement of family. In this process, there is a background and many types of settlement. The second part is the extension of family. The extensional types are 'near-by branch' and 'far-away branch'. The last part is variation of housing. Spacial requests of residence are changed endlessly. Thus the spacial types of Ddeulzip are changed by the construction time of building.

In many case, we couldn't decide the building period. The genealogy of Chosun Dynasty is the base of family history.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activity of Ddeulzip is based on the genealogy. The phylogenetic tree of Ddeulzip in clan village is constructed by the genealogy. The figures of the type of bunch of grapes is made by phylogenetic tree based on the genealogy.

Omi Village in Andong was settled at first in the 15C. The cause of settlement is the aim of escape from political oppression. For long time, Omi Village is developed gradually. There area is divided in some small family boundary. There spacial types are con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many times. Orock Village in Bonghwa is settled for search of best environment in the last of 17C. At that time, a lot of families of same clan are gathered in that village. For short time, Orock Village is enlarged quickly. Thus there spacial type is similar each other. But boundary of entire space of outdoor is constructed clearly by pavilion area, housing area and sanctuary area.

.....  
key words : Transition, Settlement, Extension, Variation, Genealogy  
.....